

# 임신과 노동

신 동 천

여성의 직업이 임신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그간에 많은 연구를 하였던 A. D. McDonald는 최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11개의 병원을 중심으로 약 56,00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와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여 임신과 노동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근로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요즈음 태아에 미치는 직업요인을 알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직업과 임신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역학적 연구에는 많은 혼란요인들이 개재되므로 둘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

핀란드에서 병원 퇴원자료와 직업기록을 조사하여 자연유산률이 여덟개 직업군에서 높다고 하였으며 이를 연령표준화하여 살펴보면 건축업,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임신부에서 높고 관리직과 사무직에서 낮다고 하였다. 또한 세부분석에 의하면 금속작업과 전기작업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몬트리올연구에서도 역시 판매직과 서서비스직 그리고 간호보조직 등에서 유산의 위험성이 크고 관리직과 사무직에서는 낮았다.

미숙아중 37주 미만의 조산아의 출산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연령, 출산회수, 이전의 출산결과 및 합병증 등의 변수들을 보정해 준 후에 비교한 결과 상점고용원, 의료종사원, 미숙련공, 세탁업종사원에서 평균보다 높은율을 나타냈고 교사, 사무원, 숙련공에서 낮았다. 몬트리올연구에서도 식음료서비스 등 판매서비스직에서 조산률이 높았고 식음료서비스원, 청소원, 세탁원, 금속작업공, 전기작업공 등에서 저체중아 출산률이 높았다.

선천성 기형에 관하여 미국의 Atlant 주 Georgia를 중심으로 다섯군데의 군(county)에서 조사한 바로는 토순(cleft lip)이 간호직, 인쇄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몬트리올연구에서는 탈장(hernia) 등 몇몇 기형을 제외하고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선천성기형에 관한 연구는 대상건수가 적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Visual Display Units(VDUs)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건강장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78년에서 1980년 사이에 비정상적인 출산이 여럿 보고되어 비정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낮은 주파수의 전자기장에 의한 영향과 생체에 부적합한 작업자세에서 기인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였으나, 아직 생체내의 발병기전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몬트리올연구에서 VDU와 관련된 출산의 이상을 조사하였는데 최근에 유산을 경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최근에 유산을 경험한 사람이 VDU 작업자에서 많았다는 사실도 유산이라는 사건을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다는 점과 유산을 했던 사람에서 과다보고(over-reporting)했을 가능성 그리고 정상임산부에서의 과소보고(under-reporting)의 가능성을 들어 그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다음의 사실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임신부, 특히 관리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동이 임신에 위험성이 없다는 증거가 충분하다.

둘째, 심한 육체노동과 불만족스러운 작업조건,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판매업 등은 자연유산이나 조산아의 출산을 야기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미리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유기용제는 태아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한 기형유발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